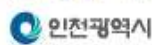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	
		배포일자	2021년 3월 3일(수) 총 6매		
담당 부서	인천문화 예술회관	담당자	• 기획운영팀장 이동선 ☎ 420-2710 • 담당자 정수산 나 ☎ 420-2736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아쉬움은 뒤로, 기대감은 음악 앞으로!
인천 시민과 함께할 2021년을 꿈꾸다.
- 인천시립교향악단의 풍성한 2021 시즌 스타트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난해를 떠나보내고 2021년을 문화예술 활성화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인천시립교향악단(예술감독 이병욱)이 새로운 시즌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의욕적인 움직임은 보인다고 밝혔다.
- 올해는 총 6개의 핵심 시리즈가 이번 시즌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며 인천시민들에서 클래식 성찬을 펼쳐 보인다.
- 웅장한 합창 + 오케스트레이션 : 뉴 골든 에이지 시리즈
-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제시 할 “뉴 골든 에이지 시리즈”는 합창음악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. 미완의 대곡인 모차르트의 ‘레퀴엠’을 6월에,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

9번 ‘합창’을 12월에 선보인다.

- 인천시립합창단을 비롯해 소프라노 홍주영, 메조소프라노 김정미, 테너 박승주 베이스 양준모 등 한국을 대표할만한 최고의 솔리스트들로 라인업을 꾸렸다. 비엔나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와 합창 지휘를 함께 병행한 예술감독 이병욱의 진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

■ 아름다움이 음악으로 피어나다 : 로맨틱 시리즈

-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작품이 중심이 될 “로맨틱 시리즈”는 2번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. 사무치는 아름다움을 테마로 한 4월 공연은 섬세한 타건으로 사랑받는 피아니스트 윤홍천과 함께 한다. 슈만 피아노 협주곡과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을 들려준다.
- 5월에는 신비로운 선율들을 테마로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서곡, 로드리고 아랑훼즈 협주곡, 슈만 교향곡 2번을 들려준다. 아랑훼즈 협주곡은 인간극장으로 주목 받은 한국계 벨기에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가 연주한다. 아름다움이 음악으로 피어나는 순간을 목도할 수 있는 연주회이다.

■ K클래식의 미래를 보다 : 클래식 나우 시리즈

-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을 선정하여 클래식의 현 시점을 조망하는 “클래식 나우 시리즈”도 주목할 만하다.

-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최연소 수석으로 활동하는 플루티스트 김유빈을 3월에 만날 수 있으며, 바카우어 국제 아티스트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내면과 개성이 담긴 음악적 세계를 11월에 직접 경험할 수 있다. K클래식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이기도 하다.

■ 사랑하는 작곡가를 만나다 : 작곡가 집중탐구 시리즈

- 한명의 작곡가에게 깊이 있게 다가가는 “작곡가 집중탐구 시리즈” 도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. 가을의 초입인 9월에는 ‘브람스를 좋아하세요?’란 주제로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 협주곡과 교향곡 1번을 연주한다.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, 첼리스트 문태국이 함께 나선다.
- 이어 10월에는 생상스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며 생상스의 주옥과 같은 작품들로 구성된 ‘생상스 앤솔로지’가 기다린다. 첼리스트 송영훈, 오르간 신동일의 연주회 첼로협주곡 1번과 교향곡 3번 오르간을 들려준다.

■ 인천 음악의 DNA : 인천인 인천 in 시리즈

- 인천의 DNA를 가진 음악인들의 축제 “인천인 인천 in 시리즈”는 올해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이다.
- 인천 출신의 음악가를 조망하는 <인천 음악인의 밤>과 시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<인천시민오케스트라 연주회>가 각각 4월과 7월에 예정되어 인천의 클래식 마니아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.

■ 실내악의 정수 : 실내악 에센셜 시리즈

- 더불어 실내악의 정수를 맛 볼 수 있는 “실내악 에센셜 시리즈” 도 상반기인 3월과 하반기인 10월을 장식한다. 유니크한 프로그램 구성과 섬세한 연주의 묘미를 느끼고 싶은 관객에게 추천한다.
- 그밖에도 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한 <청소년 음악회>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의 텃밭을 가꾸는 <아이사랑 태교음악회>, 한 해를 마무리하는 <송년음악회>등이 2021년 시즌을 보다 풍성하게 채운다.
- 인천시립교향악단은 “지난 해 코로나19로 관객들을 모시지 못해 무척 아쉬웠다.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2021년을 꿈꾸며 정성껏 준비한 무대를 즐겨주시기 바란다.” 고 말했다.
문의) 인천시립교향악단(☎032-420-2781)

<붙임 1> 관련사진

<붙임 2> 참고자료

〈인천시립교향악단 공연 사진〉



〈인천시립교향악단 2021 시즌 프로그램〉

웅장한 합창 + 오케스트레이션 : **뉴 골든 에이지 시리즈**

- 모차르트 “레퀴엠” (6월 4일)
- 베토벤 “합창” (12월 10일)

아름다움이 음악으로 피어나다 : **로맨틱 시리즈**

- 사무치는 아름다움 (4월 2일)
- 신비로운 선율들 (5월 14일)

K클래식의 미래를 보다 : **클래식 나우 시리즈**

- 플루티스트 김유빈편 (3월 12일)
- 피아니스트 신창용편 (11월 12일)

사랑하는 작곡가를 만나다 : **작곡가 집중탐구 시리즈**

- 브람스를 좋아하세요? (9월 10일)
- 생상스 앤솔로지 (11월 12일)

인천 음악의 DNA : **인천人인천in 시리즈**

- 인천음악인의밤 (4월 16일)
- 인천시민오케스트라 (7월 23일)

실내악의 정수 : **실내악 에센셜 시리즈 I · II** (3월 5일 / 10월 29일)